2021년 이사장 신년사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은 '하얀 소' 의 해로 희망과 평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공단의 비전으로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춤의 순간들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대로 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공단 출범 이후 교통안전본부와 3개의 지사 그리고 1개 운항관리센터를 신설하고 15개 도서지역에 운항관리업무를 확대함으로서 121명이 증원된 정원 537명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총예산도 592 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양안전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목포와 인천에 해양사고 예방과 저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부지 선정과 예산을 확보하였고, 부산에는 R&D 기능을 특화한 해양안전 협력연구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 '친환경 선박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AI 기반 종합정보포털 시스템 '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기술·정보 기반 업무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해양안전 정책 사업으로
공단은 검사제도 선진화, 표준어선형 제도, 5톤미만 어선 기관 비개방검사 도입 및 육상용 소화기 어선 사용 등 규제혁신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복지 향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연계한 기술연구 사업으로
공단은 '어선설계건조 플랫폼 구축' 과 '친환경 어선엔진 개발' 을 위한 약 600억 규모의 대형 연구 과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수행될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중소형 선박 설계사무소와 조선소 등 관련업계 기술수준향상과 동반성장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인프라 위에 구축된 굳건한 안전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서 해양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깨끗하며 스마트한 바다를 향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을 바탕으로 분야 전문성과 실천능력을 갖추고, 조직 구성원간 신뢰로 화합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은 노력으로 내실을 다진다면 공단은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미래의 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이겨낸 여러분 삶에 잊지 못할 성취와 만족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단은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인내 덕분입니다. 계속되는 격무 속에서 한발 한발 내디뎌 오늘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롯이 어선검사기관에서 해양교통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뎠을지 가늠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고, 달려온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여서 공단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다가온 기회를 도전정신으로 키워내며 공단의 성장을 이끌어 온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 해양안전은 굳건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뤄지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연승